

일하는 사람 누구나 금속노조

드디어 노조법 개정!
금속노조와 함께하면
열린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나다 진짜 사장
커진다 노동자 권리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 어디서나
1811-9509



금속노동자

ilabor.org

2025.12. | 375

노동자의 길 | 한국지엠지부 구조조정 저지 투쟁
사람과 현장 | 금속노조 13기를 마치며

기획 | 금속노조 산별교섭 진단과 과제
특집 | 크게 승리하는 2026년 원청교섭 투쟁

 전국금속노동조합



표지 이야기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노조법을 개정했다. 진짜 사장을 상대로 하는 원청교섭 투쟁이야말로 기업별 담장을 넘어 우리 금속노동자가 함께 싸워나가야 하는 길이다. 노조법 2·3조 개정법 취지를 살리는 투쟁 필요하다. 2026년 차별철폐라는 산별노조 정신에 따라 원청교섭 쟁취 투쟁에 힘차게 나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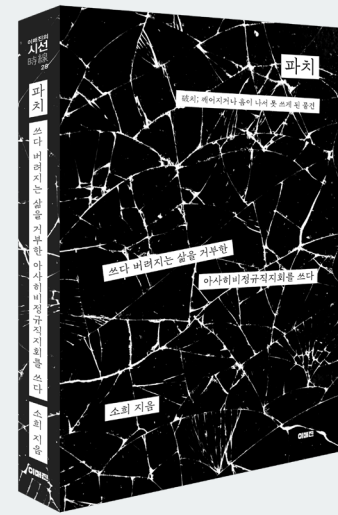
2025년 12월 375호

기획	금속노조 선전홍보실
발행	장창열 금속노조 13기 위원장
취재	선전홍보실 김규백, 김민진, 박향주, 이진희
홈페이지	https://www.ilabor.org/
페이스북	koreametal
인스타그램	metalunion1
이메일	edit@ilabor.org
주소	(우)04518 서울시 중구 정동길5 경향신문사 별관 5층
문의	02-2670-9507
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쇄	새날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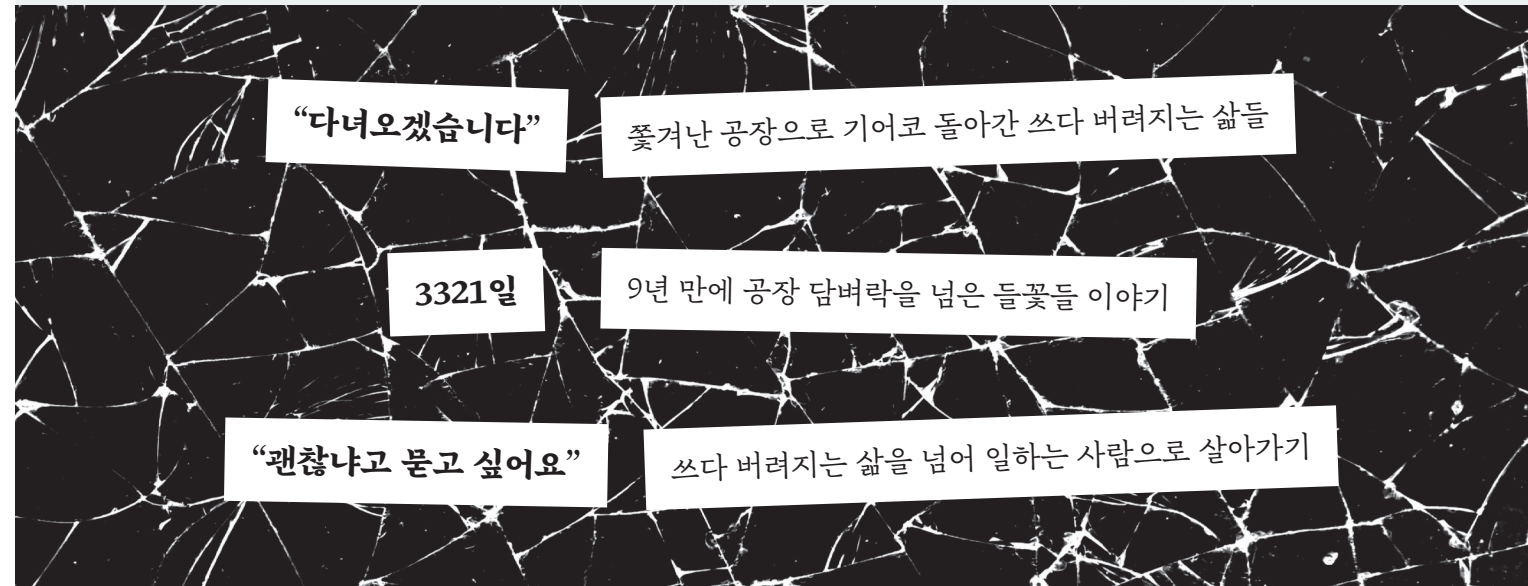
더 많은 금속노조 소식은 QR코드를 찍어주세요

“공장은 우리를 경쟁하게 하지만, 노동조합은 우리를 협력하게 하죠.”



깨진 유리처럼 버려진 비정규직 노동자 178명
문자 메시지 한 통으로 일터에서 쫓겨난 ‘불량 인생’
노조 할 권리와 인간답게 살 길을 찾아
끈끈한 동지애와 연대의 힘으로 당당히 공장으로 돌아간
아사히글라스지회 9년을 기록하다

파치 | 소희 지음 | 295쪽 | 18000원 | 이매진 破치; 깨어지거나 흠이 나서 못 쓰게 된 물건



“다녀오겠습니다”

쫓겨난 공장으로 기어코 돌아간 쓰다 버려지는 삶들

3321일

9년 만에 공장 담벼락을 넘은 들꽃들 이야기

“괜찮냐고 묻고 싶어요”

쓰다 버려지는 삶을 넘어 일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대법관이 아사히글라스 불법 파견 판결문을 읽는데 첫마디에 ‘파, 기, 환, 송’이라고 들었다. ‘파’라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나도 모르게 ‘와’ 탄성을 지르고 있는 힘껏 양손을 마주치며 손뼉을 쳤다. 다른 사람들도 일제히 탄성을 지르고 손뼉을 치면서 일어섰다. 이겼다.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 노동자들이 이겼다. 아사히글라스 자본을 법정에 세워서 형사 처벌을 받게 했다. 9년 만에 거둔 결실이었다. 2024년 8월 1일,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을 뺀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지회’ 깃발을 안고 공장으로 복직했다.

— 본문 294쪽